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및 운영 모형 설계

Analysis and Operational Model Design of the “Villag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윤규빈(Gyubin Yoon)

E-mail: s1umber@pusan.ac.kr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과정



논문접수 2024.1.16

최초심사 2024.1.19

게재확정 2024.2.13

ORCID

Gyubin Yoon
https://orcid.org/0009-0005-8484-8686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본 논문은 윤규빈의 석사학위논문 「마을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2024)를 요약·수정함.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진행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하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방안으로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통해 마을기록활동가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의 시사점을 프로그램의 교육자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다. 면담의 시사점은 목표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발전 방안으로 정리하여 운영 모형에 반영하였다.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은 모형의 구조, 설계 원칙, 목표별 교육 과정 모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villag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hereinafter “training program”) and propose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operational model to improve it. With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training programs, revitalizing programs and systemizing operations become imperative. This study focuses on achieving the program's goals, the competenc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and the continuity of training programs and archiving activities. To this end, the meaning and rol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were investig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Moreover, the current status of training programs from 2015 to 2023 was identified, and the implications of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were ver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rogram educators.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view were summarized as the program operational plan for each goal, the competenc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and the development plan, thereby being reflected in the operational model.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program operational model was proposed to incorporate a model structure, design principles, curricular modules for each goal, and considerations for each stage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Keywords: 마을기록활동가, 기록교육, 기록활동,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운영 모형
Village citizen archivist, archival education, archiving activities, village archives, operational model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을기록활동가는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활동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시민 아키비스트, 주민기록가와 같이 다양하게 지칭된다(이도순, 2021).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시범사업’의 일부로 지역 주민 대상 기록교육이 제공된 이후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하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과거에 전문가가 주도하던 외부자 관점의 수집 중심 지역 기록화에서 벗어나 내부자인 주민이 지역의 기록을 직접 수집하고,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지역에서 진행된 만큼 그 목표와 내용이 다양하다. 각 지역의 특성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획일화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마을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마을기록활동가가 각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지역 기록의 주체가 되게 하는 첫걸음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역량 간의 연계,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방안으로 역량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로는 참여형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 마을활동가 연구, 마을기록활동가 교육 연구를 살펴보았다. 참여형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는 시론적 연구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시론적 연구에는 이영남(2008), 김익한(2010), 설문원(2012), 윤은하(2012)가 있으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학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기록전문가가 ‘아래로부터의 기록’을 바라볼 관점을 고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로는 손동유, 이경준(2013), 이경래(2015), 손동유(2020; 2021)가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공동체, 전문가, 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위해 협업해야 하고, 공동체의 주체적인 아카이브 운영을 지원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연구는 교육학, 도시공학, 문화예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마을활동가의 개념과 역할정체성을 규명한 연구로는 황규홍(2016), 지혜연(2017), 김동민, 정석(2019), 임선이(2021)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을활동가의 개념과 역할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마을기록활동가 교육 연구로는 이규현(2017), 박지영, 윤은하(2020), 김현영(2021), 이도순(2021), 유혜린(2022)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공공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기록화를 교육하는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민간 아카이브에 새로운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참여형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활동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마을기록활동가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실증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사례 분석과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면담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에 기반한 운영 모형을 운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는 생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활동을 하는 주체를 양성하고자 여러 차시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록활동의 의미를 알아보고,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사례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전수 조사와 대표 사례 분석으로 나뉜다. 전수 조사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 52개를 대상으로 주관 기관,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성과, 추후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중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개설된 교육 목표별 대표 사례와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지속성이 두드러지는 사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장기성, 지속성, 목표별 특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면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역량에 기반한 운영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기록활동의 지속성, 평가 및 발전 방안을 면담의 질문 영역으로 활용하였다. 면담을 통해 검증한 목표별 교육 과정,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안), 지속성을 위한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은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 설계에 반영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모형은 설계 원칙, 교육 과정 모듈,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2. 마을기록활동가의 의미와 역할

2.1 지역 주민 주도 기록활동의 의미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록활동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가 발전하면서 함께 활성화되었다. 주민의 기록활동이 활성화되기 전에도 지역 기록화 프로젝트는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자 관점의 객관성과 중립성,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 한계로 거론되었다.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기록화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과 같이 지역의 기록을 직접 생산하고 수집하여 지역의 특성을 기록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설문원, 2011). 지역 주민의 기록활동은 주민이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과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활동의 과정과 결과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형성된다. 우선 기록활동을 통해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은 지역 사회 내 기록의 다양성을 높인다(Flinn, 2007). 누군가가 개개인의 자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지역 민간기록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이 기록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기록이 기록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주민은 기록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소속감을 느낀다(Caswell et al., 2017). 주민은 이웃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면서 서로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함께 발굴한 기록은 공동체가 스스로 사회에 반영된 모습을 목격하게 해 준다. 공동체의 기록이 사회에 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은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록활동은 주민 주도형 기록관리 체계의 토대로도 이어진

다. 주민이 지역의 기록을 직접 수집하고 생산하고 분류하고 기술하고 보존하는 것은 주민이 지역의 기록을 관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록문화는 보편화된다. 기록 행위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활용한 문화에 기반한다. 주민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기록하는 것은 스스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명옥 외, 2021). 기록활동이 지속될 때 기록문화를 향유하는 주체 역시 확장될 것이다. 이렇듯 주민의 기록활동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형성되며 각각의 의미는 경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2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과 역량

2.2.1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

마을기록활동가가 지역 공동체와 기록활동을 함께 수행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에 기여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운동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항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마을활동가와 연결하여 마을기록활동가의 개념, 역할, 역량을 탐색하였다.

마을활동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성과를 위해 주민을 이끌거나 함께 소통하거나 서로 연결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주체”이다(김동민, 정석, 2019; 임선이, 2021; 지혜연, 2017; 황규홍, 2016). 한편 마을기록활동가는 “지역 공동체의 가치, 역사, 이야기, 활동 등을 수집, 생산, 채록, 관리하여 기록으로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핵심 주체”로 정의되고 있다(4.16기억저장소, 2019; 박지영, 윤은하, 2020; 설문원, 2012; 이도순, 2021; 이동준, 2017). 두 개념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마을기록활동가를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가치, 역사, 이야기, 활동을 주민과 함께 기록으로 생산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활동 주체”로 정의하였다.

마을활동가의 역할정체성으로는 공익을 위해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이념실천가(마을혁신가), 마을 사업에 활용할 자료를 발굴하여 문화로 기획하는 마을기획자, 마을 관련 지식을 축적하여 학습과 공유의 장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마을교육가가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다(황규홍, 2016; 임선이, 2021). 또한 마을기록활동가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의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가 제안되었다(이도순, 2021). 마을활동가의 역할정체성과 마을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종합해서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을 마을기록실천가, 마을기록생산자, 마을기록관리자, 마을기록교육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마을기록생산자는 마을기획자의 ‘생산’ 역할에 주목하여 ‘기획’을 ‘생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실천가로서의 마을기록활동가는 마을의 기록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면서 공익을 위해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를 개선하고 혁신한다. 생산자로서의 마을기록활동가는 구술채록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을 마을의 역사로 연결하고 이를 콘텐츠로 생산한다. 교육가로서의 마을기록활동가는 지역과 기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오랜 세대가 가진 기억을 지역 지식으로 보존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유하여 토론과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로서의 마을기록활동가는 마을공동체의 기록을 생산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2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마을기록활동가가 실천가, 생산자, 관리자,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알맞은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은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고, 활동 경력이 쌓일수록 강화되므로 기록활동에 적절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지혜연, 2017).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을 역량으로 구조화하기 위해서 Spencer와 Spencer(1998)의 역량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1998)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이 수행 배경으로 가지는 내적 특성을 ‘역량’으로 정의했다. 역량은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 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지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이고, 기술은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과 기술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기 개념은 “태도, 가치관, 자기상(self-image)”을 의미하며, 시간이 걸리긴 하나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즉, 교육 프로그램은 Spencer와 Spencer가 제시한 역량 중 변하기 어려운 동기와 특질을 제외하고,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자기 개념 역량을 마을기록활동가에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각 역량을 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

3.1 교육 프로그램 전반

이 절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록을 도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52개의 명칭은 선행연구(이도순, 2021; 유혜린, 2022)에서 제시한 38개의 프로그램과 ‘마을기록학교’, ‘시민기록학교’,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기록활동가 양성 과정’, ‘기록활동가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시민기록가 양성 과정’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 엔진에서 발견한 1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각 프로그램을 다룬 기사, 주관 기관의 공지사항, SNS,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여 52개 프로그램의 지역, 진행 주체, 교육 기간,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성과, 후속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의 목록을 지역권에 따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권별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역권	프로그램명	개수
강원	횡성 마을기록학교	1
경기권 (경기, 인천)	과천 마을공동체활동 아카이빙 교육 / 광명 마을기록가 양성교육 ‘담다’ / 광명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양성과정 /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 미추홀 시민기록자 교육 / 수원 마을기록학교 /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 안산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기억으로 쓰는 동네 이야기 / 인천 연수구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 오산시 우리마을 기록하기 / 의왕 시민기록가 양성 과정 / 이천 시민기록자 양성 과정 / 파주기록학교 / 화성 마을기록학교	14
경상권 (경상, 울산, 대구, 부산)	부산 강서구 마을자산기록활동가 양성과정 / 구미시민인문기록단-인문학에 풍당 / 김해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과정 <도시의 기록자> / 마을기록학교 @대구 / 문경 마을 아카이브 동네기록단 프로젝트 / 부산 남구 마을기록학교 ‘돌아봄’ / 안동 경북 기록문화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 울산 중구 마을기록학교 / 창원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9
서울	서울 기록활동가 양성과정(서울기록원) / 강남구 마을아카이브 학교 / 관악 마을공동체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금천구 마을기록학교 / 노원구 지역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도봉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서대문구 마을의 기록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과정 /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 양천구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양성과정 / 영등포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마을기록학교 / 은평 마을기록학교	11
전라권 (전라, 광주)	광주 마을기록자 양성 프로그램 ‘돌아봄’ / 무주군 마을기록활동가 기초과정 / 순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 익산 마을기록가 교육과정 / 장수군 마을기록학교 / 전남 마을기록전문가 양성 과정(조선대학교)	6

충청권 (충청, 세종, 대전)	대전 ‘우리 마을 우리 기록’ 마을기록학교 / 대전 서구 도란도란 도솔마을 아카이빙학교 / 서천군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과정 /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아산 로컬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 제천 도시재생 마을기록활동가 교육; 마을기록학교 /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 홍성 마을기록학교	9
제주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제주 일도2동 마을기록자 양성 교육; 두문마을 기록학교	2
총합		52

<표 1>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진행 현황을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 교육 방식, 주요 교육 내용, 목표, 강사, 성과, 후속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관 기관은 사업 추진 예산을 보유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문화원(문화재단), 기록관, 도서관, 그 외 공공기관(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민/민간 단체가 주관 기관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유혜린, 2022), 지역의 대학,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관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문장 형태의 목표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하면 <표 2>와 같다. 한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명이 여러 항목에 등장할 수 있다. 그룹 A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하려는 목표로 ‘지역 기록화’로 정리하였다. 그룹 B는 기록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공동체 정체성 강화’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C는 주민이 스스로 기록하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표로 ‘기록문화 확산’으로 정리하였다.

<표 2>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현황

목표	목표 키워드	사례 지역명	사례 수
지역 기록화 (그룹 A)	마을 기록화	대구, 대전(우리마을), 시흥, 아산, 익산, 인천 연수구, 서울 강남구, 홍성	8
	(사라지는) 지역 기록화	광명(담다), 대전 서구, 문경, 부산 강서구, 수원, 안산, 이천, 인천 미추홀구, 전남, 화성	10
	주민 참여 기록화	구미, 대전(우리마을), 대전 서구, 문경, 서울 성북구, 서울 영등포구, 서천, 수원, 익산, 제주 일도, 제천, 화성	12
	지역사 기록	서울 성북구, 수원, 오산, 제주 일도, 화성	5
	지역 문화사 기록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 안동, 제주	4
	지역 문화자원 공유	증평	
	지역 문화자원 발굴	구미, 군포, 김해, 무주, 부산 강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세종, 인천 연수구, 전남, 파주, 횡성	13
	지역 문화유산 보존	창원	1
공동체 정체성 강화 (그룹 B)	지역 콘텐츠 개발	구미, 군포, 밀양, 서울 관악구	4
	공동체 활성화	과천, 울산 중구, 인천 연수구, 창원, 횡성	5
	지역 성장	서울 영등포구, 파주	2
	지역 정체성 강화 / 탐색	광명(새터), 서울 서대문구, 울산 중구, 장수, 전남, 제주 일도, 제천	7
기록문화 확산 (그룹 C)	애향심 향상	서천, 울산 중구	2
	개인 생활사 기록	서울 도봉구	1
	기록문화 확산	구미, 서울(서울기록원), 서천, 순천, 안동, 의왕, 제천, 청주	8
	기록 인력 양성	김해, 대구, 무주, 부산 강서구, 서울 양천구, 세종, 안동, 이천, 청주	9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각 차시에 교육되는 주제이다. 다양한 교과목명을 키워드로 단순하게 표현하여 유사성에 따라 묶으면 <표 3>과 같다. 영역 A는 기록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기록 일반(기록의 이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기록의 가치, 아카이빙의 이해 등), 마을 기록(개념, 사례), 공동체 기록(공동체 아카이빙, 개념, 사례), 일상 기록(일상 기록의 가치, 개념, 사례), 지역 기록(우리 지역의 기록, 개념, 사례)이 소속한다. 영역 B는 지역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사라져 가는 지역(재건축 현장, 우리 지역의 사례), 지역사, 지역 생활문화(지역 문화, 마을공동체, 공동체 생활, 축제 등), 지역 환경(지역의 풍경, 지역 답사, 지역의 유적지 등)이 소속한다. 영역 C는 구술 관련 영역으로 구술 인터뷰 과정(구술자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영역 D는 기록 수집이나 생산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 수집, 기록화 방법론, 사진기록이 포함된다. 영역 E는 마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마을콘텐츠 제작(기록집, 잡지, 전시), 영상이 포함된다. 영역 F는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수행해 보는 내용으로 기록 분류, 정리, 기술, 보존이 포함된다. 영역 G는 글쓰기 이론과 실습으로 글쓰기가 포함된다.

<표 3>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영역

교육 영역	교육 세부 내용				
기록 이해(영역 A)	기록 일반	공동체 기록	마을 기록	일상 기록	지역 기록
지역 이해(영역 B)	사라져 가는 지역	지역사	지역 생활문화	지역 환경	
구술(영역 C)	구술자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기록화 방법론(영역 D)	기록 수집	사진기록			
콘텐츠 생산(영역 E)	기록집	마을 잡지/신문	영상	전시	
기록관리 방법론(영역 F)	기록 분류	기록 정리	기록 기술	기록 보존	
글쓰기(영역 G)	글쓰기(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는 각 차시의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자이다. 강사는 “기록학을 전공하거나 기록학계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인 기록전문가와 비기록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이도순, 2021). 이 연구에서는 기록 전문가를 ‘기록 분야’ 강사로, 기록학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기록 외 분야’ 강사로 정리하였다. 프로그램의 강사는 교육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될 수 있다. 교육 방식은 각 차시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이론, 실습, 견학 등이 있다. 교육 방식은 이론 중심형, 실습 중심형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이론, 실습, 견학을 교육 내용과 시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박지영, 윤은하, 2020; 이도순, 2021).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프로그램에서 결과로 도출하려는 산물로서, 출판과 전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이도순, 위의 글). 출판 성과물에는 지역의 주제를 글과 사진으로 다루는 기록집, 지역민 대상의 구술집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시는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전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성과는 출판과 전시 외에도 ‘성과 공유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공유되기도 한다. 후속 활동은 교육 프로그램 이후에 진행되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끝으로 가시적인 과정을 마무리하나,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록 동아리를 모집하거나 지역 아카이빙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교육 프로그램 52개의 진행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항목별 진행 현황

항목	항목 분류	분류 설명
주관 기관	기록관	행정구역 단위 소속 기록관
	도서관	지역 내 도서관
	문화단체	지역 내 문화원, 문화재단
	공공기관 부서(그 외)	행정구역 단위 공공기관 소속 평생교육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민간 기관/주민 공동체	지역 내 연구센터 등 민간 비영리단체, 주민 공동체
	대학교	지역 내 대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교육 목표	지역 기록화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고 수집
	공동체 정체성 강화	기록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
	기록문화 확산	주민이 스스로 기록하는 문화 확산
교육 내용	기록 이해	기록 일반,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기록, 일상 기록, 지역 기록에 대해 이해
	지역 이해	사라져 가는 지역, 지역사, 지역 생활문화, 지역 환경 등 이해
	구술	구술자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기록화 방법론	기록 수집, 사진기록
	콘텐츠 생산	기록집, 마을 잡지 혹은 신문, 영상, 전시 등의 마을 콘텐츠 생산
	기록관리 방법론	기록 분류, 정리, 기술, 보존과 같이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글쓰기	구술채록, 기록 생산 등에 필요한 글쓰기 기술
강사	기록 분야	기록학을 전공하거나 기록학계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기록 외 분야	- 기록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 - 기록활동가, 지역사학자, 작가, 민속학자, 박물관학자, 마을활동가, 사진작가, 구술사학자 등
교육 방식	이론, 실습, 견학	
성과	출판	기록집, 구술집 등: 출판 기념회로 연결
	전시	교육 내용에 따라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 전시
후속 활동	기록 동아리, 지역 아카이빙 사업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이 상호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주관 기관은 마을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달성하려는 목표와 결과인 성과가 존재하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에 적합한 교육 내용, 방식, 강사를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마을에서 기록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기록활동가가 양성된다. 양성된 마을기록활동가는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공동체에게 기록과 함께 공유한다.

3.2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3.1에서 도출한 교육 목표별 대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3년 이상 매년 개설된 지역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다만 한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목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하위 절의 제목은 각 교육 목표를 ‘강조한다고 표기하였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은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될 때 프로그램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즉 ‘기록활동의 지속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 요인으로, 일부 프로그램에서 사업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정기 진행이

나 심화 과정을 기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그중에서도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지속성이 두드러졌던 파주시 시민채록단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각 사례는 관련 기사, 주관 기관의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SNS 게시글을 통해 1차로 분석하였고, 추후 활동과 성과 도출 과정, 프로그램 진행 분위기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담당자와 통화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다.

3.2.1 ‘지역 기록화’ 강조: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하고자 한다. 이 항에서는 지역 기록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중 기초 과정이 3년 동안 3회 개설되었고, 심화 과정 또한 2회 전개된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지역 기록화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2021년에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초 과정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 심화 과정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회 개설되었다. 개설된 모든 기초 과정이 “탐라의 역사, 문화, 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고자 하며, 1기부터 3기까지의 기수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나 대체로 지역 이해, 기록 이해, 콘텐츠 생산, 기록화 방법론, 구술 등을 교육하였다. 기초 과정을 80% 이상 수강한 교육 참여자들은 수료증을 발급받고 심화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심화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보다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이며 제주의 특정 지역에 실제로 방문하거나 제주에 특화된 주제의 강의를 추가하는 등 지역 중심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자가 선정한 기록화 주제를 마지막 차시에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심화 과정에 포함되었다.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의 참여자는 심화 과정 수료 후에 ‘시민기록관’으로서 일정 원고료를 받으며 기록화 프로젝트나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예시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우리마을 옛사진 공개수집’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를 아카이브에 업로드하거나, 마을지 발간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 제2기 연도(2022년)부터는 시민기록관 간에 기록 동아리를 결성하여 매월 1회 모임을 가지고, 관심 주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3.2.2 ‘공동체 정체성 강화’ 강조: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이 항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프로그램이 7회 개설되었고, 심화 과정이 2회 전개된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정체성 강화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은 서천군청 평생교육팀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서천군청 웹사이트에서는 2020년부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2017년부터 총 7회 진행되었으며, 2022년, 2023년에 심화 과정이 2회 진행되었다. 기초 과정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였으나 대부분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기록하여 애향심을 기르고 사라져 가는 지역 민속 자원을 계승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초 과정의 교육 내용 역시 헛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상세하게 변화하였으며, 대체로 지역과 마을기록에 대한 이해,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과 정체성, 기록화 방법론, 기록관리 방법론 등을 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의 강사는 민속학자 1인으로 일관되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기초 과정 참여자가 교육을 8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고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심화 과정에서는 구술사 실습과 문서 작성법을 다루는 등 (2022년 과정) 이론보다는 실습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의 참여자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수료 후 별도로 모집하는 마을기록활동가에 지원할 수 있으며, 기록활동 시 원고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서천군청 측에서 2021년에 ‘사방팔방 서천이야기 기록단’이라는 기록 동아리를 결성하여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사방팔방 서천이야기’라는 마을기록활동집을 펴내고

있다. 기록활동집에는 마을기록활동가가 지역 주민을 인터뷰하여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 역사, 자연 환경 등을 ‘마을기록카드’에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3.2.3 ‘기록문화 확산’ 강조: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이 항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 동안 프로그램이 총 3회 개설된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이하 “문화도시센터”)와 청주기록원(2020년에는 청주시 기록관)에서 주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2회의 기초 과정과 1회의 심화 과정을 개설하였다. 각 교육 프로그램은 “기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박창서, 2020). 기초 과정에서는 마을기록을 포함한 기록 이해, 구술, 스토리텔링 글쓰기, 수집을 활용한 기록화 방법론 등이 주로 교육되었으며, 2021년의 제2기 기초 과정에서는 실제 사례 지역을 탐방하는 등 교육 참여자가 마을기록, 지역, 지역 주민을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는 지역학 연구자,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등을 초빙하였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이론, 실습, 견학이 채택되었다. 교육 참여자가 기초 과정에 80% 이상 참석할 경우 ‘시민기록가 교육 수료증’을 수령하고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심화 과정에서는 실습과 현장 활동 비중이 기초 과정에 비해 늘어났으며, 기록활동을 진행하고 성과물을 도출하는 내용이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었다.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참여자들은 교육 과정 동안 마을의 사라져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 기록물 등을 직접 수집하고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하였으며, 아카이빙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성과 보고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였다. 다만 결과집 발간과 성과 보고회 이후에는 기관 차원의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록활동 역시 교육 참여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졌다.

3.2.4 ‘기록활동의 지속성’ 강조: 파주중앙도서관 시민채록단

이 항에서는 파주중앙도서관의 시민채록단 사례를 통해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에서는 서비스 목적 중 하나로 ‘기록하는 도서관’을 설정하여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서 마을을 기록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파주시 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 이를 위해 기록관리팀이 관내에 조직되어 있고 아카이브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었다. 그중 장기 과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파주 마을 아카이브 기획강좌’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파주기록학교’이다. 두 프로그램의 결과로 ‘시민채록단’ 동아리와 ‘기록활동가’ 그룹이 양성되었다.

파주 마을 아카이브 기획 강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마을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다. 각 강좌에서는 시민의 삶과 일상을 기록하여 도시의 역사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책을 펴내거나(강좌 ②), 민간기록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등(강좌 ④) 개별 목표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졌으나 대부분 마을 기록을 포함한 기록의 이해, 기록화 대상(지역의 장소, 주민의 기억 등)과 방법론, 지역 이해, 구술인터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 역시 목표에 따라 기록전문가, 작가, 구술전문가, 기록활동가, 사진작가, 편집 전문가, 마을 콘텐츠 기업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파주기록학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 과정 3회, 워크숍 1회로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지역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하며, 교육의 내용은 마을 기록에 대한 이해와 사례, 구술 인터뷰와 글쓰기, 지역 이해, 기록화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강사 역시 교육 내용에 맞추어 기록전문가,

작가, 사진작가, 기록활동가, 지역사 연구자가 초빙되었다. 다만 2021년에는 2020년 파주기록학교 기초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파주기록학교 기록활동가 선발’이라는 명칭의 워크숍을 23차시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기록화 기획, 기록 수집, 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인 기록화와 추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에 참여한 기록활동가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워크숍의 결과물은 졸업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게 공유되었다.

시민채록단 동아리는 마을 아카이브 기획 강좌 ① 이후에 공식적으로 결성된 주민 기록 동아리이다. 강좌 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시민채록단은 타 강좌의 수료생과 같은 새로운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파주기록학교 이후에 시민채록단 활동 의향이 있는 기록활동가들 역시 시민채록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채록단은 전담 멘토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채록한 결과물을 도서관 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공동체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구술채록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주기적인 ‘휴먼 IN PAJU’ 전시와 「지금 여기, 선유리」(2022)와 같은 책자를 발간하고 출간기념회를 가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3.2.5 사례 비교 분석

각 프로그램의 특징은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만 파주시 중앙도서관의 마을 아카이브 기획 강좌와 파주기록학교는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 분리해서 표기하였다.

<표 5>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 목표별 대표 사례 비교 분석

	제주시	서천군	청주시	파주 - 기획강좌	파주기록학교
교육 기간	2021-2023	2017-2023	2020-2022	2017-2019	2020-2022
교육 회차	기초 과정 3회, 심화 과정 2회	기초 과정 4회, 심화 과정 2회	기초 과정 2회, 심화 과정 1회	4회	기초 과정 3회, 워크숍 1회
교육 목표	지역의 역사, 문화, 삶을 기록	- 지역민과 함께 마을 문화, 역사, 자연 환경 관련 기록물 제작 역량 강화 - 지역 자존감 회복, 지역력과 애향심 향상 - 소멸 위기의 지역 자원 계승	시민들과 기록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기록활동가 양성	시민의 일상과 삶을 기록하여 지역사로 연결	지역 가치 발굴, 수집, 공유를 통해 도서관과 주민이 함께 성장
교육 과정 (기초)	(10차시) 기록 이해 / 지역 이해 / 기록화 방법론 / 기록관리 방법론 / 현장 강의 / 구술	(10차시) 기록 이해 / 기록화 방법론 / 구술 / 문서 작성법 / 콘텐츠 생산	(15차시) 기록 이해 / 기록관 견학 / 구술 / 글쓰기 / 기록화 방법론 / 콘텐츠 생산	(7차시) 기록 이해 / 기록화 방법론	(6차시) 기록 이해 / 지역 이해 / 글쓰기 / 기록화 방법론
교육 과정 (심화 / 워크숍)	(10차시) 지역 이해 / 기록 이해 / 기록화 방법론 / 현장 강의 / 구술	(5차시) 구술 / 문서 작성법 / 콘텐츠 생산	(20차시) 기록화 방법론 / 구술 / 현장 활동 / 콘텐츠 생산	3년에 걸쳐 기획강좌 1~4 진행	(23차시) 지역 이해 / 기록 이해 / 기획과 수집 활동 / 콘텐츠 생산
성과	구술채록 내용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로드	마을기록활동집 발간 (2회)	- 마을 아카이빙 책자 - 마을 기록 영상 - 성과 공유회	- 구술채록 내용 책자 발간 - 전시	책자 발간 / 전시
후속 활동	기록 동아리 (월 1회 진행)	기록 동아리	X	‘시민채록단’ 동아리, 기록활동가 그룹	

각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 다양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으나 기록과 지역을 이해하는 내용과 기록화 방법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기록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수집할 것인가’와 같은 내용이 교육되었다. 두 번째, 교육 방식으로 이론, 실습, 견학을 혼합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여러 교육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심화 과정이나 워크숍이 개설되었다. 이는 기초 과정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기록활동의 실무를 추가로 교육하고 활동가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성과를 공유한다. 교육 참여자가 교육 내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 생산하고 편집하여 책자로 발간하거나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전이나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게 기록활동의 산물을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록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는 지역의 기록활동을 개인에게 전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각 교육 목표별 대표 사례인 제주, 서천, 청주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제주시의 경우 기초 과정의 1기부터 3기까지, 총 28차시의 수업 중 지역(혹은 제주) 관련 주제가 18회 등장하였다. 서천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차시의 수업(기초 과정) 중 마을 관련 주제가 31회 등장하였다. 청주시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과정의 1기부터 2기까지, 총 30차시의 수업 중 주민이 스스로를 자신과 이웃의 삶에 연결해 보는 주제(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 민간기록, 생애기록)가 16회 등장하였다. 즉 지역 기록화 중점 프로그램은 지역 관련 주제를, 공동체 정체성 강화 중점 프로그램은 마을 관련 주제를, 기록문화 확산 중점 프로그램은 주민의 삶과 연결하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파주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파주시에서는 기초 과정 수료자에게 추후 교육과 워크숍을 제공하여 주민이 기록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멘토를 초빙해서 기록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였다. 기록 동아리의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전용 공간과 전담 전문가가 배치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를 분석하여 장기 프로그램의 공통점,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간의 관계성,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시사점은 이후의 면담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4.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역량 기반의 운영 방안

4.1 면담 설계

이 장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검증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역량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개 이상의 지역에서 교육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면 면담 2인, 서면 면담 1인, 화상 면담(ZOOM) 3인을 진행하였다. 대면과 화상 면담은 약 50분에서 75분을 소요하였으며, 면담 전 피면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역량에 기반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Spencer와 Spencer(1998)의 역량 이론을 역량의 바탕으로 삼고, 2.1에서 정리한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과 3.1에서 도출한 교육 내용을 역량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였다. 최상위 역량군에는 자기 개념, 지식, 기술 역량을 배치하고, 역량 요소에 7개로 분류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 역량군 아래 기록 이해와 지역 이해 요소를, 기술 역량군 아래 구술, 글쓰기, 기록화 방법론, 기록관리 방법론, 콘텐츠 생산 요소를 배치하였다. 각 역량 요소 아래에

는 세부 교육 내용을 역량 세부 요소로 삽입하였다.

지식 역량군은 마을기록활동가의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기술 역량군은 생산자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실천가로서의 역할에 활용될 교육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자기 개념 역량군과 연결하였다. 실천가는 기록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면서 공익을 위해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역할이다. 이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가치관’ 요소와 기록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록활동 태도’ 요소로 연결하였다. 가치관 요소 아래에는 ‘공동체 가치’와 ‘애향심’을, 기록활동 태도 요소 아래에는 ‘실천’, ‘선도’, ‘협력’을 삽입하였다. 다만 ‘자기 개념’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역량의 본 의미(가치관, 자기상)와 연결하여 ‘가치’ 역량군으로 명명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은 <표 6>과 같다.

<표 6>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

역량군	역량 요소	역량 세부 요소				
가치	가치관	공동체 가치	애향심			
	기록활동 태도	실천	선도	협력		
지식	기록 이해	기록 일반	공동체 기록	마을 기록	일상 기록	지역 기록
	지역 이해	지역사	지역 생활문화	지역 환경	사라져 가는 지역	
기술	구술	구술자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글쓰기	-				
	기록화 방법론	대상 선정	기록 수집	사진기록		
	기록관리 방법론	기록 분류	기록 기술	기록 정리	기록 보존	
	콘텐츠 생산	마을 잡지/신문	기록집	영상	전시	

<표 6>의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과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질문 영역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면담 질문지를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기록활동의 지속성, 평가 및 발전 방안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면담 내용을 각 영역에 따라 서술하였다.

4.2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의 교육자들(이하 “교육자들”)에게 교육 목표 분류에 대한 의견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목표를 질문하였다. 우선 교육자들은 교육 목표를 지역 기록화, 공동체 정체성 강화, 기록문화 확산의 세 가지로 분류한 데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주관 기관이 표방하는 교육 목표는 언급한 세 가지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목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교육자 A).

또한 제시한 세 교육 목표 외에도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교육자 B) 기록활동을 통한 흥미 추구(교육자 F)를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다만 제안된 두 목표는 지역을 기록화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이 기록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

한편 교육자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웃 간의 소통(교육자 B, D, E)이다. 참여자가 자신의 마을공동체에게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의 기록 생산과 기록문화 경험이다. 이는 교육의 목표가 기록을 기록활동의 산물으로써 생산하고, 시민이 기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양성된 활동가의 기록활동 경험이 지속되게 하는 데에 있다(교육자 C)거나, 기록활동이 주관적이거나 다양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전달(교육자 F)하는 데에 두는 것이다.

이상의 답변을 종합하면 교육자들은 교육 목표를 ‘지역 기록화’, ‘공동체 정체성 강화’, ‘기록문화 확산’의 세 가지로 분류한 데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흥미를 추구하는 목표를 추가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는 교육 참여자가 공동체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것, 시민이 기록을 생산하여 기록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기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분화한 것과 동일하며 교육의 내용과도 연결된다.

4.3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다. 3.2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간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을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교육자들의 답변에는 교육 내용과 방식, 강사 등이 함께 포괄되어 있다.

지역 기록화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역을 이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답변되었다. 이때 교육 참여자들이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교육자 C, D). 또한 지역의 가치를 주민의 삶과 연결하여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교육자 A, E), 교육 참여자가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기록화의 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되었다(교육자 E).

공동체 정체성 강화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지향점(교육자 E)과 기억이 기록과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관계(교육자 A)가 교육되어야 한다고 답변되었다. 이는 각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기록하고자 하는 기억이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아카이빙의 기술(교육자 A, C)과 기록에 대한 동기 부여 과정(교육자 D), 활동가 그룹(교육자 E)이 필요하다고 답변되었다. 아카이빙의 기술에는 매체 활용 능력과 기록화 방법론이 포함되고, 동기 부여 과정을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이 기록의 가치를 체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록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활동가 그룹으로서 기록활동을 함께 진행할 때 기록문화가 확산될 확률이 높다고 답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 이후에 혼자서도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상의 답변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육자들은 지역 기록화 강조 프로그램에는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지역사 교육, 지역 견학, 지역 공동체 간의 토론 시간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 공동체 정체성 강화 강조 프로그램에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향점과 기억, 기록, 정체성 간의 연결성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일상 기록, 공동체 기록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록문화 확산 강조 프로그램에는 아카이빙의 기술과 기록활동의 동기 부여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매체 활용 능력과 기록화 방법론 교육, 기록의 가치와 일상생활 속 의미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내용을 두 가지로 답변하였다. 첫 번째는 기록활동의 동기 부여를 위한 기록의 의미와 가치(교육자 A, C, D, F)였으며, 두 번째는 기술적인 아카이빙 교육(교육자 A, E)이다. 교육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내용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문화 간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교육자들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마을기록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과 연결된다.

4.4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마을기록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자들에게 <표 6>의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에 대한 의견, 각 역량군, 역량 요소 간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우선 교육자들은 역량(안)에 대하여 개선, 추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사항별로 교육자들의 피드백을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에 대한 교육자들의 피드백

항목	내용
개선 사항	- 기술 역량군 내 ‘기록화 방법론’ 요소가 모호하며 기록화 과정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 ‘기획’으로 용어 변경 (교육자 C) - 전체적인 구조화 필요 / ‘가치’ 역량군 용어 변경: ‘가치 이해’, ‘가치 습득’ (교육자 E)
추가 사항	- 지식 역량군에 ‘지역 정치’, ‘지역 경제’ 요소 추가 (교육자 B) - ‘기록 활용’, ‘기록 공유’ 요소 추가 (교육자 C) - ‘역사의식’ 요소 추가 (교육자 E)
고려 사항	- 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역량 역시 중요 (교육자 A) -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소(비용, 예산, 공간 등) 필요 / 각 역량군은 서로 연계 (교육자 D)

<표 6>과 같이 제시되었던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에는 지역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기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역량이 추가되어야 하고,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마을기록활동가가 기록활동을 실천할 때에는 현실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개발된 역량과 기존의 역량이 서로를 지탱해 줄 때 역량의 효과 역시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자들은 가치, 기술, 지식 역량군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역량군을 단편적으로 꼽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모든 역량군이 장기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함양되어야 하거나(교육자 C), 성과가 중요한 경우 기술 역량군이 가장 중요해지는 등(교육자 A, D)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서 역량군 간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면담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자들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같이 기록활동 과정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가치와 교육 참여자의 내적 성장과 연결되는 가치 역량군에 주목할 수 있다.

교육자들은 역량군 내의 역량 요소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가치 역량군 내에서는 교육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답변이 달라졌으며, 이는 가치 역량군 내 모든 요소가 기록활동의 기반으로 써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기술 역량군 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성과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답변되었고, 지식 역량군 내에서는 기록활동의 지식적 기반을 무엇에 두는지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답변되었다. 즉, 역량군 내 역량 요소의 중요도는 교육의 진행 기간, 성과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 역량군은 기록활동의 기반으로 모든 요소가 개발되어야 하고, 기술 역량군은 세부 프로그램별 단기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 요소가 달라지며, 지식 역량군은 장기적인 과정에서 각 요소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5 기록활동의 지속성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황을 인식하여 교육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원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기록활동이 지속된 사례와 지속성을 위한 지원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요인, 지속성의 조건, 필요한 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언급되었다. 첫 번째는 주관 기관과 사업 담당자의 문제로, 담당자가 아카이빙과 기록교육 기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교육자 A, D, E). 두 번째는 기록활동에 부적합한 교육 참여자를 선정할 경우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참여자를 선발한 것을 의미한다(교육자 C, D). 세 번째는 교육 참여자가 실제 기록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로, 이는 아카이빙을 실제로 수행할 때 문제를 겪는 사례였다(교육자 A, E).

기록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성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활동가 그룹 내의 관계(교육자 C, F), 교육 참여자가 기록활동에 느끼는 흥미(교육자 F), 지역 내 자체 역량(교육자 B, C)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주관 기관이 네 가지 지원을 제공할 때 기록활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공적 기관과 담당자 자체로(교육자 B, C, E, F), 특히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교육자 B, F). 두 번째는 재정적 지원으로,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예산(교육자 A)과 마을기록활동가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교육자 E)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공간 지원으로, 이때의 공간은 기록물을 모으는 공간과 주민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하며(교육자 E), 공간을 활용하여 기록의 산물을 전시와 같은 형태로 공동체에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답변되었다(교육자 F).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 지원으로, 추가 교육은 특히 실제 기록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자 A, E).

교육자들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여태까지의 프로그램들은 주관 기관과 사업 담당자가 기록교육 및 아카이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기록활동에 부적합한 교육 참여자를 선정했거나, 교육 참여자가 실제 기록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지속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활동가가 그룹 내에서 친밀한 관계와 기록활동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고, 지역 내 자체 역량이 존재할 때 열정적인 공적 기관이 재정, 공간, 추가 교육을 지원해 주면 기록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때 추가 교육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아카이빙 기술을 교육하는 심화 교육 과정과 실제 기록화 기획 및 수행을 포함하는 워크숍으로 구성할 수 있다.

4.6 평가 및 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중 성공적이었던 사례, 문제가 있었던 사례, 기록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전 방안을 질문하였다. 이에 따른 답변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척도, 성공 요인, 발전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성공 요인은 기관, 담당자, 참여자 등으로 실패 요인을 반전시킨 측면이 있어 아래에서는 평가 척도와 발전 방안을 서술하려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척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록과 활동가의 공존 여부(교육자 B, E)로, 이는 마을기록활동가가 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교육자 A)로, 교육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만족하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주민의 기록문화 경험 여부(교육자 C)이다. 교육 참여자가 직접 그리고, 쓰고, 말하는 등의 기록문화를 경험하였을 때 교육의 의미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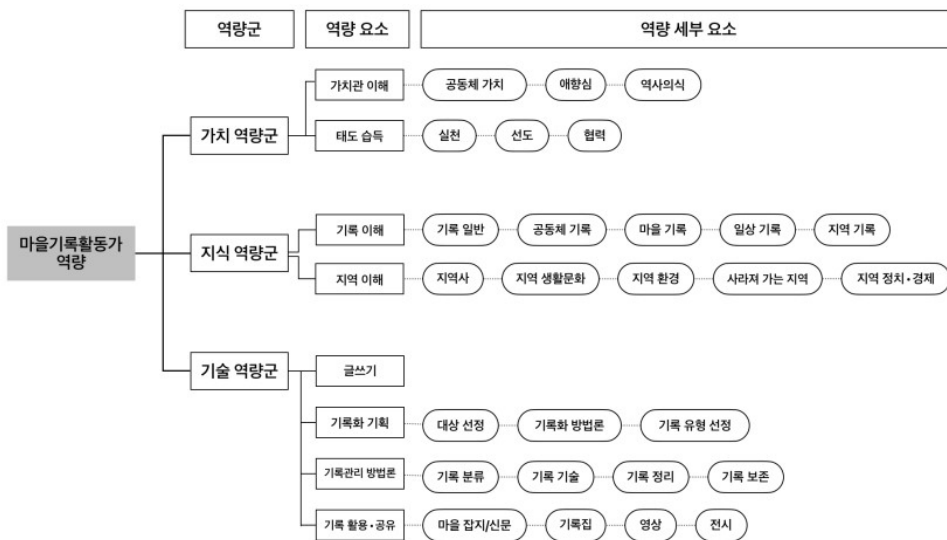
교육자들이 제안한 발전 방안은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세분화(교육자 A, D)이다. 주민이 기록을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기록활동의 다양한 방법론을 다루고,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세분화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전문가와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 분리(교육자 A, F)이다. 기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기록문화 향유와 전문가의 기록화 작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교육자 B, E)이다. 이는 교육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고 특성,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마을기록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교육자 C, E)로, 타 지역 마을기록활동가 간의 교류를 지원하여 참고 사례를 제공하고, 활동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록활동에 대한 흥미를 더욱 촉발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교육자 B, F)하는 것이다. 기록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하고 공유할수록 지역에 대한 애정이 함양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되었다. 교육자들이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은 전체적으로 주민을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고, 주민이 기록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4.7 면담 종합 분석

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간의 관계,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 방안,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을 검증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답변 내용을 재구성하여 주관 기관이 제공해야 할 교육 목표별 교육 내용과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추가 교육 과정, 적절한 지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역량(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념도를 수정할 수 있다. 4.4의 <표 7>과 같은 교육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역량(안)을 수정하고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주민의 특성과 의견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의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연계 구조와 전체 면담 내용을 활용하여 주관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계를 준비(위탁 운영 의뢰 전), 기획(프로그램의 내용 기획), 진행(참여자 모집부터 성과 공유까지), 지원(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면담의 내용과 각 운영 단계를 연결하면 <표 8>와 같다.



<그림 1> 수정된 마을기록활동가 역량 개념도

<표 8> 면담 종합 분석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 연결

면담 영역	답변 내용	세부 내용	운영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목표 분류에 대한 견해	'지역 기록화', '공동체 정체성 강화', '기록문화 확산'의 세 가지로 분류한 데에 대체로 동의	기획
	목표 추가 제안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 / 흥미 추구(앞서 분류한 세 가지와 연결 가능)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목표와 내용의 관계	- 지역 기록화 → 지역의 가치 이해, 구체화 - 공동체 정체성 강화 → 공동체의 가치, 기억-기록-정체성의 연결성 - 기록문화 확산 → 아카이빙 기술, 동기 부여 과정	기획
	중요한 교육 내용	아카이빙 기술 / 기록활동의 동기 부여 → 기록문화 확산과 연결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개선, 추가, 고려 사항	마을기록활동가 역량(안) 수정	기획
기록활동의 지속성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실패 요인	기관과 담당자의 교육 프로그램 이해 부족	준비
		부적합한 참여자 선정	진행
		실제 기록활동에서의 어려움	지원
	지속성의 조건	활동가 그룹 간의 관계	기획, 진행
		기록활동의 흥미	진행
		지역 내 자체 역량	진행, 지원
지속성 지원	재정, 공간	지원	
	추가 교육	기획, 지원	
평가 및 발전 방안	평가 척도	활동가의 지속적인 기록활동 / 주민의 기록문화 경험	전 단계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	진행
	성공 요인	기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추진 환경 조성 / 열정적인 담당자	전 단계
		기록활동에 적합한 참여자	진행
	발전 방안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내용 세분화 / 전문가와 활동가의 역할 분리	기획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마을기록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기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회	진행, 지원

<표 8>과 같이 면담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를 연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역량 기반의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제안하려 한다. 각 운영 단계로 연결된 답변 내용은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전체 단계로 연결된 내용은 모형의 원칙에 반영하였다.

5.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 설계

5.1 설계 원칙

역량 기반의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이하 “프로그램 모형”)은 마을기록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고자 설계되었다. 프로그램 모형에서는 주관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교육 과정안을 교육 목표별 교육 과정 모듈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때 교육 목표는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지역 기록화)’, ‘기록활동을 통한 공동체 정체성 강화(공동체 정체성 강화)’, ‘주민이 스스로 기록하는 문화 확산(기록문화 확산)’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 기관은 각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기록활동을 지속(기록활동의 지속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주관 기관은

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성과,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 모듈을 한 개 이상 선택하고 이를 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형은 모형의 구조, 설계 원칙,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서술하였다. 프로그램 모형은 교육 목표별로 설계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특정 역량을 개발하는 구조를 가진다.

프로그램 모형은 다음의 원칙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이때 개별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별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하고, 장기 양성 과정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모듈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둘째, 교육 과정 모듈은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역량을 연계하여 구성한다. 셋째, 교육 과정은 교육 목표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강사로 구성한다. 이때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모듈의 교육 과정은 장기 양성 과정에서 앞서 제공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구성한다. 넷째, 가치 역량군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술 역량군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와 연계하여, 지식 역량군은 장기 양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 참여자가 기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모듈과 교육 방식에서 실습, 견학 중 한 가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필수로 포함한다. 여섯째,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구성한다. 일곱째, 주관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한다.

5.2 원칙별 이행 방안

5.2.1 교육 과정 모듈의 조합

주관 기관은 한 개 이상의 교육 목표를 선택하여 각 목표에 따른 모듈을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교육 목표별 모듈은 각각 ‘기록화 모듈’, ‘정체성 모듈’, ‘기록문화 모듈’이다. 한편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모듈은 ‘지속성 모듈’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교육 참여자의 기록활동이 지속되는 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추가로 제공하는 데에 활용된다. 지속성 모듈은 장기 양성 과정에서만 채택할 수 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교육 목표별 모듈로 구성되고, 동일 참여자에게 심화 과정을 제공하는 장기 양성 과정에서는 지속성 모듈을 앞선 교육 프로그램에 더하여 구성할 수 있다.

5.2.2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역량의 연계

교육 과정 모듈에서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록활동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 참여자에게 배양된다. 역량을 교육 과정과 편리하게 연계하기 위해서 코드를 부여하면 <표 9>와 같다. 역량군에는 알파벳을, 역량 요소에는 숫자를 부여하여 ‘A01’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표 9> 교육 과정 역량 코드

역량군	코드	역량 요소	코드	역량군	코드	역량 요소	코드	역량군	코드	역량 요소	코드
가치	W	가치관 이해	01	지식	K	기록 이해	03	기술	T	글쓰기	05
		태도 습득	02			지역 이해	04			기록화 기획	06
						기록관리 방법론				07	
						기록 활용·공유				08	

5.2.3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

교육 과정에는 목표에 따라 교과목명의 예시로 나타낸 교육 내용, 이론, 실습, 견학 등의 교육 방식, 강사를

포함하였다. 모듈의 구조, <표 9>의 역량 코드,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 목표별 모듈을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공되는 교육 내용, 교과목명, 강사는 3장의 사례 분석에서 파악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표 10>의 교육 과정 전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한편 지속성 모듈은 교육 프로그램을 한 차례 진행한 후 필요한 교육 과정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양성 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고려하여 타 모듈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속성 모듈의 교육 과정은 장기 양성 과정의 조건을 명시한 5.2.5에서 함께 제시하였다.

<표 10> 교육 목표별 교육 과정 모듈

교육 목표	세부 교육 목표	교육 내용(교과목명 예시)	교육 방식	강사	양성 역량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 (기록화 모듈)	주민이 지역을 이해한다	00시의 역사와 문화 이해(지역사)	이론	지역사학자, 지역학연구자	W01, K04
		함께 걷는 00시 탐방(지역 견학)	견학	지역사학자, 지역학연구자	W01, W02, K04
	주민이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한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지역의 가치 토론)	실습	지역사학자, 지역학연구자	W01, W02, K04
기록활동을 통한 공동체 정체성 강화 (정체성 모듈)	주민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마을공동체와 마을살이 이해하기	이론, 견학	마을활동가	W01, W02
		지역 사회에서 마을기록활동가의 역할	이론	마을활동가, 기록활동가	W01, W02
	주민의 기억이 기록과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일상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	이론	기록전문가, 기록활동가	W01, K03
		00시의 기억 - 00시 사람들 이야기	이론, 견학	기록전문가, 기록활동가, 구술사학자	W01, K03, K04
주민이 스스로 기록하는 문화 확산 (기록문화 모듈)	주민이 아카이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사진을 글로 표현하기	실습	기록활동가, 작가	W02, T05
		00(기록 유형)으로 기록하기	이론, 실습	해당 기록 유형 분야 전문가	W02, T06
		기록의 정리와 분류	이론, 실습	기록전문가	W02, T07
		00(성과물 유형)을 통한 마을기록	이론, 실습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W02, T08

5.2.4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할 역량은 프로그램의 성과와 기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치 역량군은 기록활동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역량군으로 모든 교육 과정과 연계해야 한다. 기술 역량군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목표하는 성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하려는 기록 유형과 성과에 맞추어 연계해야 한다. 지식 역량군은 기록활동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 이어서 심화 과정,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 장기 교육 과정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5.2.5 교육 참여자의 직접적인 기록문화 경험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 참여자가 기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문화 모듈을 각 프로그램에 필수로 삽입할 수 있으며, 교육 방식 역시 참여자가 기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이나 견학을 필수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5.2.4의 역량 연계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표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장기 양성 과정용 체크리스트는 <표 12>와 같다.

이때 지식 역량군의 기록 이해와 지역 이해 역량이 전체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사례 분석 결과 성공적이었던 장기 양성 과정들이 ‘지역 이해’, ‘기록 이해’, ‘기록화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화 방법론’이 소속하는 ‘기록화 기획’ 역량을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 방식 역시 이론, 실습, 견학을 모두 혼합하여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방식 모두 포함하였다.

<표 11> 개별 교육 프로그램용 체크리스트

역량		모듈		교육 방식	
가치관 이해	<input type="checkbox"/>	기록문화 모듈	<input type="checkbox"/>	1개 이상	
태도 습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견학	<input type="checkbox"/>

<표 12> 장기 양성 과정용 체크리스트

역량		모듈		교육 방식		
가치관 이해	<input type="checkbox"/>	기록문화 모듈	<input type="checkbox"/>	이론	<input type="checkbox"/>	
태도 습득	<input type="checkbox"/>					
기록 이해	<input type="checkbox"/>					
지역 이해	<input type="checkbox"/>					
기록화 기획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1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지속성 모듈	<input type="checkbox"/>	견학	<input type="checkbox"/>	
글쓰기						<input type="checkbox"/>
기록관리 방법론						<input type="checkbox"/>
기록 활용·공유						<input type="checkbox"/>

장기 양성 과정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성 모듈을 제시할 수 있다. 지속성 모듈에서는 앞선 프로그램에서 배양되지 못한 역량을 개발하고 교육 참여자가 아카이빙을 실제로 기획하고 수행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지속성 모듈의 세부 교육 목표를 ‘추가 교육’과 ‘워크숍’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과정 및 양성 역량을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표 13>의 교육 내용 역시 사례 분석 장의 프로그램을 일부 참고하였다. 기록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활동가 그룹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지속성 모듈에서의 교육 과정은 팀 단위로 구성하였다.

<표 13> 지속성 모듈

교육 목표	세부 교육 목표	교육 내용(교과목명 예시)	교육 방식	강사	양성 역량
지역 주민이 기록활동을 지속(지속성 모듈)	프로그램 이후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	개발되지 못한 필수 역량을 위한 교육 과정 구성			
		교육 참여자가 희망하는 주제의 추가 교육 과정 구성			
	기록활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팀별 아카이빙 기획	실습	기록활동가	W01, W02, T06
		OO(기록 유형)으로 기록하기	실습	기록활동가, 해당 유형 분야 전문가	W01, W02, T05, T06
		팀별 피드백 교환	실습	기록활동가	W01, W02
		기록 정리하기	실습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W01, W02, T07
OO(성과물 유형)을 통한 마을기록	실습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W01, W02, T08		

5.2.6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구성

앞서 제시한 교육 과정 모듈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는 모듈에 제시된 교육 과정을 하나의 틀로써 활용하되, 진행 단계에서 교육의 세부 내용을 참여자의 특성, 역량, 요구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목표하는 성과물, 수집하거나 생산하려는 기록의 유형, 견학 장소 등을 교육 참여자에게 맞추어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5.2.7 주관 기관의 지원

주관 기관은 제안된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 이후의 기록활동이 계속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즉, 기관 차원에서 업무 분장을 논의하여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담당자 역시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관하여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특성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숙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형의 원칙별 이행 방안은 운영 단계별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운영 단계별로 프로그램 모형의 구현 시 고려할 사항을 서술하였다.

5.3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

5.3.1 준비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단계는 주관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전 기관의 사업 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주관 기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아카이빙과 기록 교육을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아카이빙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록활동의 결과물인 콘텐츠와 원자료인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 교육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타 지역의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을기록활동가가 기록활동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지식을 함양하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5.3.2 기획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는 주관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과정, 성과를 기획하는 단계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모형의 교육 과정 모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과 장기 양성 과정으로 나뉜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가이드라인과 장기 양성 과정 기획 시 가이드라인은 <표 14>와 같다.

<표 14> 개별 교육 프로그램과 장기 양성 과정의 기획 가이드라인

<p><u>교육 프로그램 기획 가이드라인</u></p> <p>①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 * 주민이 스스로 기록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목표는 필수로 포함한다.</p> <p>② 생산하거나 수집할 기록의 유형을 지정한다.</p> <p>②-1. 기록 유형에 이행되어야 하는 기록관리 방법을 지정한다.</p> <p>③ 성과물의 유무를 지정한다. (유 → ③-1으로, 무 → ④로)</p> <p>③-1. 성과물의 유형을 지정한다.</p> <p>④ 개별 교육 프로그램 체크리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강한다.</p>
<p><u>장기 양성 과정 기획 가이드라인</u></p> <p>①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를 먼저 실행한다.</p> <p>② 지속성 모듈을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이후 과정으로서 추가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계획하되, 추가 교육의 세부 내용은 기초 과정 진행 후 교육 참여자에게 맞추어서 기획한다.</p> <p>③ 장기 양성 과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한다.</p>

주관 기관은 교육 목표와 과정, 성과 외에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가와 교육 참여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록 방법론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한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5.3.3 진행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는 주관 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참여자들과 실제로 진행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주관 기관은 태도가 적극적이거나 기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등 기록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활동가 그룹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별 활동을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성과 공유 과정에서는 전시, 성과 공유회,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활용하여 기록활동의 성과를 지역 공동체에게 공유할 수 있다.

5.3.4 지원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단계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교육 참여자가 마을기록활동가로서 활동하고 기록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관 기관이 참여자와 기록활동을 지원해 주는 단계이다. 주관 기관은 지원 단계에서 마을기록활동가들을 모아 주고, 활동가와의 소통을 유지하며 재정, 공간, 추가 교육, 타 지역 마을기록활동가와의 네트워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결론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수년 간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의 민간 주체가 기록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52개의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역량에 기반한 운영 모형을 문헌 연구, 사례 분석, 프로그램 교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체인 지역 주민과 주관 기관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의 참여 주체이자 지역 내에서 기록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관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논의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과정, 지원 사항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역량 개념도를 교육자들의 검증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5장에서 제시한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은 주관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고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4.16 기억저장소 [발행년불명]. 출처: <http://www.416memory.org/about/notice>
- 김동민, 정석 (2019).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의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여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0(1), 1-17. <http://doi.org/10.23129/seouls.20.1.201903.1>
- 김명옥, 한정은, 이경란, 이동준, 배은희, 강성봉 (2021). 우리 마을을 기록합니다. 서울: 선인.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51>
- 김현영 (2021). 참여형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박지영, 윤은하 (2020).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3(1), 79-98.
- 박창서 (2020. 7. 12.). 문화도시 청주,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청주일보. 출처: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15>
-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n.d.]. 출처: <https://www.seocheon.go.kr/kor.do>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http://doi.org/10.14404/jksarm.2011.11.1.207>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손동유 (2021).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기록학연구, 69, 7-33.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07>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유혜린 (2022). 마을기록학교의 기록학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협) 대학원.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이규현 (2017). 도시형 마을공동체의 기록교육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협) 대학원.
- 이도순 (2021).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연구. 기록학연구,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이동준 (2017). 이천문화원 ‘시민 기록자’ 양성 사업. 경기문화저널. 출처:
http://kccfgg.org/webzine/src/webzine_view.php?idx=8&Focus=127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 기록학연구,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임선이 (2021). 마을공동체 문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역할 및 지원체계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이론·기획전공.
- 제주학연구센터 [발행년불명]. 출처: <http://jst.re.kr/noticeBoard.do>
- 지혜연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역량 수준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청주문화도시센터 [발행년불명]. 출처: <https://www.cjculture42.org/sub.php?code=150>
- 과주시 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 출처: <https://lib.paju.go.kr/jalib/index.do>
- 황규홍 (2016). 마을만들기 활동가의 역할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인계속연구, 7(1), 25-46.
- Caswell, M., Migoni, A. A., Geraci, N., & Cifor, M. (2017). 'To Be Able to Imagine Otherwise': community archives and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 Archives and Records, 38(1), 5-26.
<https://doi.org/10.1080/23257962.2016.1260445>
- Flinn, A. (2007).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151-176. <https://doi.org/10.1080/00379810701611936>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8). Competence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 옮김 (2012).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PSI 컨설팅.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4.16 Archives [n.d.]. Available: <http://www.416memory.org/about/notice>
- Center for Jeju Studies [n.d.]. Available: <http://jst.re.kr/noticeBoard.do>
- Culture city center of CheongJu [n.d.]. Available: <https://www.cjculture42.org/sub.php?code=150>
- Hwang, Kyu-Hong (2016). A study on role identification of A Study on Role Identifica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Activists.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7(1), 25-46.
- Ji, Hye-Youn (2017). Analyzing the competence level of maeul activists participating in the maeul community project in Seou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Korea.
- Kim, Dong Min & Jeong, Seok (2019). An Analysi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Maeul Activists -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Duration of Activities in Seoul from 2012 to 2016 -. Seoul Studies, 20(1), 1-17. <http://doi.org/10.23129/seouls.20.1.201903.1>
- Kim, HyunYoung (2021).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itizen Education Program for the Participatory Village Community Arch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Ik-han (2010).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rchiving of a vill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51-172.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51>

- Kim, Myeong-Ok, Han, Jeongeun, Lee, Gyungran, Lee, Dongjun, Bae, Eunhee, & Kang, Sungbong (2021). Record our town. Seoul: Seonin.
- Lee, Dongjun (2017). Icheon Culture Center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Journal of Gyeonggi Culture. Available: http://kccfgg.org/webzine/src/webzine_view.php?idx=8&Focus=127
- Lee, Dosoon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Lee, Kyong Rae (2015). The Politics and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Lee, Kyuhyun (2017). Record Education Plans for Urban Village Commun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rchival Management at Hanshin University, Korea.
- Lee, Young-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Lim, SunLee (2021).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ty Activists and Support Systems for a Community Culture -Focusing o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ju Central Library [n.d.]. Available: <https://lib.paju.go.kr/jalib/index.do>
- Park, Changseo (2020, July 12). Culture City Cheongju. Recruitment of participants in th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CheongJu Ilbo. Available: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15>
- Park, Jiyoung & Youn, Eunha (2020). A Case Study on the Training Program of Civic Archivist.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3(1), 79-98.
- Seocheon County Government Administration Division [n.d.]. Available: <https://www.seocheon.go.kr/kor.do>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07-230. <http://doi.org/10.14404/jksarm.2011.11.1.207>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Sohn, Dong-you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Tasks of Vitalizing Private Archives : Focused on Maeul-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Sohn, Dong-you (2021). Searching for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Private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9, 7-33.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07>
- Sohn, Dong-you & Lee, Kyoung-juhn (2013).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Yu, HyeLin (2022). A study on the Archival Meaning of education program for village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rchival Management at Hanshin University, Korea.
-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